

제조업 체감경기 개선... 비제조업은 부진 지속

전북, 12월 전망은 제조·비제조 모두 하락세

전북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11월 들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제조업은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12월 전망 역시 제조·비제조업 모두 하락이 예상돼 연말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주상공회의소가 399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I)는 91.2로 전월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생산·신규수주·자금사정 등이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2월 전망치(85.6)는 3.4포인트 급락하며 기업들은 연말 경기를 더욱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제조업 CBI가 같은 기간 92.7을 기록하며 소폭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전북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인 모습이다.

업황BS는 60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올랐으나 12월 전망(56)은 다시 후퇴했다. 생산BS(72)와 매출BS(65), 신규수주BS(70)도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다음 달 전망치는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제품재고수준BS가 100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 재고누적 흐름이 다시 강화되는 모습이다. 설비투자 실행BS는 94로 소폭 감소해 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산성BS는 73으로 9포인트나 오르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원자재 구매가격은 상승 압력을 유지하고 있어 수익

성 개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자금사정BS는 73으로 8포인트나 뛰어 유동성 여건이 한층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경영으로 요인으로는 내수부진(29.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18.0%), '자금부족'(12.2%) 순이었다. 반면 내수 부진은 전월 대비 6.0%포인트 감소해 기업들의 체감이 조금은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비제조업 CBI는 80.1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하며 회복세가 멈췄다. 12월 전망치(79.3)도 2.1포인트 낮아져 경기 비관론이 확대되는 하는 모양새다. 전국 비제조업 CBI가 91.8로 오히려 상승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구성자수별로는 채산성(-1.3p), 자금사정(-0.4p)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황BS는 56으로 전월과 동일했

으며, 매출BS는 소폭 개선(62)됐으나 전망치는 다시 하락했다. 채산성BS와 자금사정BS 역시 실적·전망 모두 악화되며 업종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비제조업 경영으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 '내수 부진' (25.6%)**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어 인력난·인건비 상승(19.4%), 자금부족(12.2%) 등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 심화'와 '원자재 가격상승'의 체감 비중이 한 달 새 증가했다.

전북 제조·비제조업 모두 12월 전망 지수가 일제히 떨어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기 인식은 다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지적인 응답 비중이 제조업에서 18%, 비제조업에서 11.2%로 조사돼 경기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상근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제13회 아름다운동행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

전북은행, 13년째 동행... 누적 기부 1억3400만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제13회 아름다운동행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달식은 26일 전주시 장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서 진행됐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13년째 해당 캠페인을 공동 주최하며, 지금까지 총 1억 34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해왔다. 취약계층을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지역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과 백종일 전북은행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은 오는 12월 10일 순창군 강천산 일대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인당 2만 원씩 기부하고 5km 산책로를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에도 동참하게 된다. 모금된 기금은 전액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테크노파크,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 'I got everything' 개점

전북테크노파크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기반 마련을 위해 나섰다.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표준화 카페 브랜드 'I got everything' 전북테크노파크점 개소식을 지난 25일 본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테크노파크 본관 1층에 문을 연 이번 매장은 전국 109번째 지점으로, 지적장애인 바리스타 2명과 매니저 1명이 함께 근무하며 전문적인 커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한 카페를 넘어 중증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일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가 직접 운영 주체로 참여하며 장애인의 현장 근무 경험 확대와 고용 안정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 설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맡아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

개소식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등 지역 관계기관과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해 새 매장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광역브랜드 '예담채', 9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브랜드로 '우뚛'... 소비자 신뢰도·브랜드 경쟁력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이 공동 개발한 광역 원예농산물 브랜드 '예담채'가 2025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9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26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예담채가 소비자 신뢰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아 올해도 대상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담채는 전북 14개 시·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북 대표 원예농산물 브랜드로,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품질·안전 농산물' 이미지를 꾸준히 쌓아왔다. 지속적인 마케팅과 소비자 중심의 품질 전략을 통해 이미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확보한 브랜드로 평가받는다.

특히 예담채는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장관상(2014~2016년 3년 연속)



질·안전 농산물 이미지를 꾸준히 쌓아왔다. 지속적인 마케팅과 소비자 중심의 품질 전략을 통해 이미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확보한 브랜드로 평가받는다.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2015~2017년 3년 연속)에 이어,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거머쥐며 '브랜드 명가(名家)'로 자리매김했다.

이정환 전북농협 본부장은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더욱 높여왔다"며 "예담채 브랜드의 가치 제고가 농가 수취가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상생 구조를 만들고 소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믿음직한 동반자 전북농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삼천신협, 자산 3000억원 돌파

전주삼천신협이 자산 3,000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한 단계 도약했다.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는 26일 전주삼천신협(이사장 최태일)과 함께 자산 3,000억원 달성을 기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삼천신협은 지난 10월 말 기준 자산 3,000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날 기념식에서 강연수 본부장이 자산달성패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최태일 이사

장과 이경탁 상임감사, 조용관 상무 등 임직원 11명이 참석해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올해 창립 32주년을 맞은 전주삼천신협은 2019년 최태일 이사장 취임 당시 총자산 1,354억원 규모에서 6년 만인 2025년 10월 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순자비율도 5.89%를 기록하며 안정성을 갖춘 중대형 우량조합으로 자리매김했다.

그간 전주삼천신협은 신협중앙회 전



북지역본부가 주관하는 각종 경영평가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경영대상 3회, 경영최우수상 6회, 경영우수상 3회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전국 조합경영평가에서도 3차례 우수조합으로 선정되는 등 탄탄한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협력 기반 다져

도쿄서 '한일 중소기업 경제 포럼' 개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정부·국회·중소기업 대표들이 도쿄에 집결해 상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공동으로 25일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스에서 '한일 중소기업 경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김원이·박성민 간사,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혁 주일한국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모리 히로시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을 비롯해 각 도도부현 중기단체 대표, 오치 도시유키 경제산업성 정무관 등 100여 명이 참여, 양국 주요 경제 인사 총 2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포럼에서는 양국의 산업 협력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공유하는 발표가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최우각 대성하이텍 대표는 한일 협업을 통한 스마트 머시닝 솔루션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기술교류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마에카와 나오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장은 양국 소비시장에서 높아지는 상호 관심을 설명하고, 해외작구 등 소비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민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장은 한국 스타트업 육성 전략과 글로벌 진출 지원정책을 발표, 아바키 타쿠야 일본 중소기업청 경영지원 부장은 일본의 성장지향형 중기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